

어린이책 내는 일의 어려움과 고단함

한 아동도서 출판인의 체험적 고백

김병준

지경사 대표

아동도서 전문 출판인이자 자신이 출판한 책들을 한번쯤 점검해 보는 어린이 달이다. 어린이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명감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뒤늦게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우울해지는 달이기도 하다.

아동도서는 어린이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어린이에 대한 기성인의 견해가 어린이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어른 중심으로 치우쳐 언제나 문제가 된다. 어쩌면 우리 기성인은 어린이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잘 알고 있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린이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그렇듯이 아동도서에도 '안됨'이라는 용어가 너무 난무하다. 과학입국을 부르짖으면서 공상과학소설은 허무맹랑해서 안되고,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자신은 무시무시한 옛날 이야기를 즐겼으면서 과기소설은 안되고, 추리소설은 비인간적이나 안되고, 삽화가 만화적이면 읽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어른은 다양한 비디오 프로그램을 만끽하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는 아주 인색한, 마치 세상이 온통 어른만이 즐기는 세계로 움직여지고 있는 느낌이다. 권위있는 어떤 단체는 「젊은 엄마를 위한 경험 많은 선생님의 충고」라는 제목의 책 등을 아동도서로 추천하는, 아동도서의 범위조차도 모르는 무성의를 저지르면서 떼떽해한다. 어린이들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그 책이 양서인 것처럼 생각하나 엄청난 오류 속에서 기성인은 죄책감도 없이 어린이를 괴롭히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관리하며, 어른의 가치기준도 애

어린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그렇듯이 아동도서에도 '안됨'이라는 용어가 너무 난무하다. 과학입국을 부르짖으면서 공상과학소설은 허무맹랑해서 안되고, 할아버지의 무릎에서 자신은 무시무시한 옛날 이야기를 즐겼으면서 과기소설은 안되고, 추리소설은 비인간적이나 안되고, 삽화가 만화적이면 읽어서는 안된다고들 말한다.

매한 요즈음 선생님과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마치 강아지처럼 길들여진 어린이가 가장 큰 미덕인 것처럼 오히려 있는 것은 힘없는 어린이들에게 또다른 형태로 착취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해 봤는지.

“유럽의 아동문학은 어른의 세계가 어린이들이 사는 장소에서 사라지거나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렸을 때 비로소 시작되었다. 상상과 모험 그리고 환상과 마법의 세계가 펼쳐지는 어린이들의 보호구역 같은 것을 만들어 그 안에서 놀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시점에서 아동문학은 출발한다. 어른이 되면 그런 것은 전부 거짓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있었던 일은 전부 거짓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모」의 작가 미카엘 엔데의 말이



다. 아동도서 출판인에게 아동도서가 어떤 것 인지를 가르쳐 주는 흥미있는 발언이라 생각 된다.

「톰 소여의 모험」은 19세기말 미국에서 씌어졌는데, 당시 산타클로스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이 어린이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때였다. 말하자면 어른들은 점점 공리적이고 현실적이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幕 저쪽에 있는 것을 잊어가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어린이들 주위에도 실리주의의 풍조가 바짝 밀려왔다. 이때 톰 소여는 속시원하게 어른들의 떼떽하지 못한 감추고 싶은 이야기를 쓰고 어린이 자신의 소망을 차레로 실현해 보인다. 친구를 이끌고 해적의 소굴에 숨어들어 어른과는 동떨어진 세계를 즐기게 해주는 것이다. 아무래도 요즈음 어른이 기대하는 착한 아이는 결코 아니었다. 피터팬의 경우는 어른이 되기를 계속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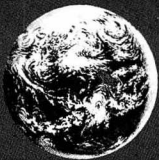
한다. 때문에 피터팬과 동행하는 역대의 어린 세대는 여전히 그 모험의 세계에 정신없이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해를 거듭함에 따라 피터팬으로부터 멀어져 점점 어른의 세계로 밀려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제임스 베리의 「피터팬과 웬디」의 테마이다. 지금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런던의 극장에서는 어김없이 상연되고 있고 켄싱턴 공원 한구석에 있는 그 조각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1989년 11월 20일은 어린이 문화와 관련된 이는 꼭 기억해야 할 날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제연합 제44차 총회는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뉴욕에 사는 세계각국의 어린이들 500명이 참가해 여러가지 기념행사를 열었는데 넓은 국제연합 총회의장이 어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1

진선출판사 전화 720-5990-1



지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지구대기행 ①②③

46억 년 전의 지구 탄생에서부터 미래의 지구 모습까지, 광활한 우주에서 경이로운 땅 속 세계까지, 비밀에 감춰졌던 지구의 역사와 신비가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구대기행」과 함께 그 신비를 풀어 나가세요!

• 기획·NHK/그림·히키노 신지/임종한 옮김 / 258쪽 / 값 3,000원

NHK 학습만화



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인체대기행 ①②③

복잡하고 신비롭기 짝이 없어 '소우주'라고까지 하는 우리의 몸, 인체, 이제 우리 몸 속의 구조와 신비를 만화로 차근차근 쉽게 설명한 「인체대기행」을 만나보세요. 재미있게 읽다보면 어느새 의학박사(?)가 됩니다.

• 기획·NHK/그림·히키노 신지/임종한 옮김 / 258쪽 / 값 3,000원

KBS 절찬리 방영중



“어른들 위한 어린이책 서평지를”

아동도서 선택의 지침 될 매체 필요하다

박용자

서울 덕의국민학교 교사

글을 깨친 지 1년쯤 지나 이제 쉬운 그림책 정도는 제법 술술 읽어내는 아들이와 함께 동네 책방에 비교적 자주 들르는 편이다. 한번 갈 때마다 대개 두세권씩의 책을 사주곤 하는데, 우선은 제 마음에 드는 책을 제 스스로 고르게 한다. 하지만, 서가 앞에 한참을 주저하고 앉은 끝에 내려진 아이의 선택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럴 적이면 조심스레 얼르고 달래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고 엄마가 골라준 책을 갖게끔 이끈다.

그러나 이 경우, 엄마로서 내 선택의 기준이 그렇게 분명한 것은 아니다. 표지의 그림이 너무 거칠고 요란하다거나, 비디오로 익숙해진 로보트나 코미디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거나 하는 식의, 누가 봐도 조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질도서를 '선택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읽을만한 책을 적극적으로 골라주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어린이책에 대한 아무런 사전지식 없이 책방에 간다는 점이다. 어린이책에 관한 한 어른들은 서점에서 방향각각을 상실한다. 성인용 도서의 경우라면 하다못해 신문잡지의 광고를 통해서라도 어느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아동도서는 사정이 다르다. 어린이날처럼 '때가 되면' 등장하는 오래 그런 정보들 말고는 아동도서 선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발견하기란 신문이고 잡지고간에 그렇게 쉽지 않다.

물론 각급 도서관이나 YMCA 같은 사회단체에서 어린이책 선택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다. 각종 추천도서목록, 권장도서목록 등이 그것인데, 그러나 그것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얼마나 널리 보급되고 있는냐 하는 데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같은 정보를 접하고 이용하는 데는 대개의 경우 특별한 관심과 성의가 요구되며, 정보 자체의 시의성 면에서도 적절치 못한 것이 보통이다.

그런 점에서 '어른들을 위한 어린이책 서평지' 같은 것이, 돈을 내면 누구나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본격적인 상품의 형태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굳이 '상품' 이면 좋겠다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정보취득 방법에서 가장 손쉽고 일상적인 것이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잡지라도 괜찮지만, 요즘 한창 증면경쟁을 벌이는 일간지들에서 주간이나 월간 부록판으로 이런 서평지를 선보인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골라 읽히려고 노력하는 양식있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종래의 아동도서 추천목록 대부분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아동도서를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실제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데 반해, 이처럼 정기간행물로 서평지가 나온다면 그때그때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대상으로 다룰 수 있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린이들에 의해 점거(?)당한 모습은 매우 상징적이고 통쾌했다. 우리나라도 90년 10월 외무부 장관이 가입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서를 91년 11월 20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 91년 12월 20일부터 이 협약의 101번째 가입국으로서 국내법과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었다. 어린이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은 1924년 국제연맹의 제네바 선언을 시작으로 1959년 어린이 권리 선언 순으로 이어져 왔지만, 이번의 이 협약은 어느 것에 비해 이상이 아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당히 선진적인 내용이다.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의 보호, 매스 미디어로의 접근 등 사회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제권리 외에도 의견 표명권, 휴식·여가·놀이·문화적 생활·예술에의 참가 권리 등 문자 그대로 적극적인 어른 사회로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물론 이것으로 우리 어린이에 대한 기존의 개념이 하루 아침에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동도서에 있어서도 오늘날의 황폐화된 어린이들의 문화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써 아동도서를 어린이의 인권이나 권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협약에서 어린이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이라는 문구가 8개 조항에서 반복해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가 아직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것을 고려해서 그 책임맡은 사람이 대행하는 경우에 대한 배려로 이상적인 자세, 즉 어른의 자아를 억제하

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어른은 언제나 자신을 억제하고 어린이의 입장이 되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학교 또는 공의기관이 이것이 어린이에게 있어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때 실제로는 그것이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제발 놀이터로 만들지 마세요. 놀이터로 만들면 놀 수가 없어요.” 이 글은 미국 북부 미니애폴리스 어린이들이 시장에게 보낸 진정서 내용이다. 어른의 발상으로 만들어진 놀이터란 언제나 그네, 미끄럼틀, 모래밭 이 세 가지 神器(?)인 극히 당연한 시설로 어찌하면 어린이의 생각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모른다. 무력한 어린이들은 언제나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어린이 최선의 이익이란 무엇보다도 어린이 마음을 알 것, 그리고 어린이에 대해 품고 있는 어른들의 편견과 오해의 많은 부분을 무너뜨릴 것을 이 협약은 요구하고 있다.

재일 한국인 작가 李恢成의 「圓속의 어린이」라는 책에서의 한 글귀가 생각한다.

“어린이는 혁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 이곳 저곳에서 흐느껴 울며 어른들의 기개 없음을 책망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한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이 어린이들의 요구와 시선을 피해 지금도 번영을 만끽하고 있다.”

어린이가 외면한 책 그리고 어린이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책은 이미 아동도서가 아니다.

그림으로 배운다

생활기공 生活氣功

전철 안에서 병을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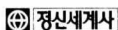
남모르게 5년을 앓아온 나의 고질병 치질을 남모르게 전철 안에서 고쳐 버렸다. 길오른 아무 짓도 안 했으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 북새통 속에서 기공을 했는지 공기를 했는지, 대체 뭘 했는지 모를 것이다. 내가 쓴 비법은 제항공법 -《생활기공》에 자세히 나와 있다.

최소한의 공간에서 빈손과 맨몸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생활기공》. 동작 하나하나를 일일이 구별한 370여 개의 그림과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건강과 미용,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생활기공을 지금처럼 책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현(한국기공연합회 회장) 지음 / 4,500원



정신세계사의 신간

*서점에 있습니다.



전화 733-3135(대) 팩시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크게 되는 아이의 아버지

당신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당신은 아이 손을 잡고 폭풍우 속을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이와 단둘이 기차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포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서를 슬며시 덮어 주면서 시집 한 권을 건네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진지하게 털어놓은 적은? 훌륭한 요리사나 청소부가 되어도 좋다고 말해 본 적은?

자녀 문제에 관한 한 늘 죄책감을 느끼는 아버지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책
다쿠마 다케토시 / 김종오 옮김 / 4,000원